

'96 국제 광학 및 사진·영상기자재전에 바란다

“금번 전시회를 통해 국내외 광학업체들간  
상호 비교전시를 통한 기술교류 및 시장개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출: 홍국학 사무관/통상산업부 산업기계과

지난 '92년까지 국내에서 광학기기 전시회를 개최한 이래 최근 수년간의 광학기기 전문 전시회가 없어 아쉬움이 있던 중 올해 '96 국제 광학 및 사진·영상 기자재전이 개최되는 것은 광학산업분야의 종합적인 축제의 한마당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광학산업은 자

원 및 에너지 절약적 고부가가치산업이면서 광학·전자·기계·컴퓨터 등 고도의 복합기술이 응용되어 첨단수요산업의 핵심거점기술로 활용이 가능, 파급효과가 매우 큰 차세대 성장유망산업이며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산업입니다. 하지만 단기간내 기술축적이 어렵고 산업화를 이룩하기가 매우 힘든 첨단기술산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불과 30여

년 전 까지만해도 우리나라 광학산업의 기반은 전무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학산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산·학·연 관계자 모든 분들의 신기술 개발과 생산기반 확충에 노력을 다한 결과 카메라, 복사기 등 결상기기중 일부 광응용기기는 팔목할만한 수준으로 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복사기의 경우 아날로그 방식은 이미 독자설계 능력

## '96 국제 광학 및 사진 · 영상기자재전에 바란다

을 확보하고 자체브랜드로 수출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으며, 복사기·팩시밀리·프린터기능이 동시에 가능한 디지털식 복합기능복사기가 '96년 하반기부터 시판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국산화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는 주로 해외 주요 전시회 출품에 의한 시장개척에 힘입어 본격 수출 유망산업으로 자리잡게 되어 지난해에는 1억 5천만 달러 수출에 이어 올해는 2억 달러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국내 광학산업 전반적으로 볼 때 '95년 기준, 내수규모가 21억 달러 수준이나 생산은 12억 달러에 불과해 15억 달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은 겨우 6억 달러를 밑도는 수준에 있어 무역 역조개선과 더불어 수입대체 산업으로 조기 육성, 전환되어야 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금번 개최되는 '96 국제광학 및 사진 · 영상기자재전은 그 필요성과 함께 광학산업발전의 계기가 될 좋은 기회라 여겨집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이러한 광학산업에 대해 '94년도에 이어 지난해에도 장기발전 비전과 전략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은 '95년부터 WTO체제가 본격 출범함으로써 정부지원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이 제약을 받게 됨

“

앞으로는 국제광학 및 사진 · 영상기자재전이 주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되길 희망하며 금번 전시회를 통해 광학산업의 밝은 미래를 제시하고 인류의 풍요로운 삶을 개척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류의장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에 따라 기업의 장기 경영전략 수립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미래 유망성장산업 중에서도 핵심산업인 광학산업에 대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작업반을 구성, 광학산업에 대한 현황과 당면 문제점을 깊이 분석하고 아울러 2005년의 발전전망과 함께 수출산업화 촉진을 위한 제반 여건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2000년 대 선진 광학산업국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가 수립한 전략과 제를 성공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책임을 갖고 앞으로 닥쳐올 시련과 역경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한 때입니다. 이제 누구나 정부의 지원과 보호를 받아 생존 할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현재까지 이룩한 노

력의 결실을 바탕으로 창의와 자율에 의한 노력으로 우리 다같이 뜻과 힘을 한데 모아 능동적으로 대처할 때 앞으로 더욱 거세질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전시회가 국내광학산업분야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외국의 첨단광학기술제품을 접하는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활용했으면 합니다. 또한 많은 해외 업체들이 참여도록 홍보하여 상호 비교전시를 통한 기술교류 및 시장개척에 새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전시회가 주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 되길 희망하며 금번 전시회를 통해 광학산업의 밝은 미래를 제시하고 인류의 풍요로운 삶을 개척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류의장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